

발 간 등 록 번 호
52-3340000-000049-09



Al Eum Al Eum

알음알음

당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
First greeting to you



사하구청 평생교육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당리동)
T. 051-220-4801~4806

사하구 평생학습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신평동)
T. 051-220-4118, 5548

사 하 구 창 간 호



세월은 깊어가고 계절도 익어가는 날
숨죽인 나의 용기는
길고 끈질긴 코로나 이겨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혼자여도 좋고 여럿이서 도란도란
함께하는 길이어도 좋다

여기 날마다 새로운 삶의 배움터
백옥 빛 건물 '사하구 평생학습관'
산뜻한 강의실 강의실마다
거대한 우주가 돌고 있다
생명이 돌고 희망이 돌고
열정의 온기가 함께 돌고 있다
무한한 시간과 배움의 공간이
그 속에 있어 생존의 기쁨을 발견한다

배움은 영혼의 콜라겐,
나를 다시 보게 된다
나를 알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을 배우고
따뜻한 정 나누며 살아가는 것
마음이 청춘이면 생각이 반짝이고
인생이 즐거우면 행복이 쌓여가니
날마다 날마다 사랑이 넘친다

꿈의 산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수강생

박
중
규



Contents

배움

평생학습관 히스토리	08
사하아카데미	10
사하자연학교	12
장애인 평생학습 테마여행	14
동네방네학습관	16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	17
평생학습동아리 탐방	18
강사 인터뷰(성인문해강사)	20

나눔

참여마당	22
사하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기관	32

채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안내	34
하반기 평생학습 홍보	36
사하 여행스케치	38



사하구 알음알음 창간호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사하구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또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하구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팩 홈페이지 주소051. 220. 4802051. 220. 4809www.saha.go.kr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당리동)

발행인 발행처 발행일 일련번호 디자인/제작사하구청장사하구 평생교육과2022년 7월2022-001빅터디자인스튜디오070. 7424. 3831

지식의 알음, 관계의 알음 정겨운 소식지 알음알음

• 사하구청장

15여 년 동안 쌓아온 우리구의 평생학습 이야기를 『알음알음』이란 제목의 소식지로 창간함에 온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르는 것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지식의 알음으로, 소원할 수 있는 도시생활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관계의 알음으로, 그렇게 15여 년을 쌓아온 이야기가 포도송이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화목한 모습의 알음으로,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귀엽고 탐스러운 아름다움의 알음[아름]으로 보이는 소식지 이름이 우리 구민들의 모습처럼 정겹습니다.

교육은 지키기만 해서도 안 되고 나아가기만 해서도 안 되는, 서로를 보완하고 존중해야하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기존의 것을 지키는데 힘을 쓰면 전통과 문화가 강조되어 젊은이들이 예의와 자긍심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힘을 쓰면 창조와 변화가 강조되어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고를 하고 사회가 역동적이게 됩니다. 이번 소식지 발간으로 우리구는 평생교육에서 신(新)과 구(舊)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초석을 깔았다는 데 사뭇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 늘 함께 다니는 말로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은 교육의 이면으로 손등을 보이면 손바닥이 따라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표현이라면 학습은 배우는 입장에서 단어입니다. 사하아카데미를 비롯한 여러 강좌를 교육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간의 구민의 열정과 관심은 학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지를 계기로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은 교육의 이름으로, 반면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 구청은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학습자의 자리로 옮겨 서로의 역할을 공감하고 또 한단계 뛰어 오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 학습의 본질은 배움과 익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서 묻고 물으면서 익히며 익히서 내 것으로 만들 때 차오르는 그 벅참은, 내 집을 장만할 때의 뿌듯함과 또 다른 감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평생학습 소식지 『알음알음』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관계직원을 비롯한 모든 애써주신 분들께 마음 속 고마움을 글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평생학습의 충격, 적응, 변화, 기대

코로나를 처음 접했던 그해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 발생으로 1학기 개강이 미뤄졌었지요. 1주, 2주, 한 주씩 미뤄지던 개강은 결국 이러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영상을 사전에 녹화하여 학교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공문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하루 중 일 오로지 컴퓨터와 나와의 외로운 싸움을 하며 영상을 만들어 탑재하고, 학생들의 결과물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며 달라진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나에게, 우리에게, 평생학습 실천현장에 성큼 다가온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일반 교육계보다 평생학습 실천현장이 받은 충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실제로 지자체의 모든 평생학습이 거의 중단되었었죠.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일반 성인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학습 참여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평생교육에 책무성을 가진 평생교육사와 강사들은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와 만나려고 노력하였고, 스스로 평생학습자가 되어 비대면 평생학습의 실체를 분석하고, 운영과 관련된 기술을 익히며,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죠. 평생학습의 정상화를 위해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자로, 비대면 프로그램의 기획자로, 운영자로 신속히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갔죠. 학습자들 역시 이러닝 플랫폼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들을 익히며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대면으로 진행되는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해졌고, 줌(zoom)으로 회의를 하거나 학습동아리 모임을 가지는 것도 익숙하게 되었죠.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금도 비대면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나란히 제공되고 있고, 일반 강의실 옆에 원격강의 시스템, 최적화된 공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이 추구했던 이상, 즉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학습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아래에 존재해 있는 한계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학습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매체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소외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교육적 측면의 세심한 배려가 존재할 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사하구 평생학습이 존재할 것입니다.

서희정(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지하철과 연결되는 전국 유일의 사하구 평생학습관

부산시청은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다. 업무 때문에 가끔 시청에 드나들면서 언젠가 한 번은 “아. 우리 평생학습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 누구나 오기 쉽고 찾기도 좋을 텐데, 시청쯤 되는 규모여야 가능하겠지?”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베스트셀러 시크릿에서 말한 우주의 끌어당김 법칙일까? 원하는 것을 자주 상상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거니! 지하철 개찰구에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는 평생학습관이 바로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되었다.

사하구가 구에서 직접 설치한 평생학습시설이 처음 생긴 것은 2008년이다. 을숙도 문화회관 2층에 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관하였다. 사하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별도의 학습공간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사 1명을 별도로 배치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이 2008년부터 중단되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동력을 잃고 말았다. 당시에 공간 조성은 했으나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다.

그 후 교육부는 2011년부터 다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을 재개하였고 사하구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2012년 4월에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것은 처음이었다.



충만한 책상이 있는 3개의 강의실, 평생학습관 사무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입주하였고 강의실은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강의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기관마다 눈치작전을 펼치며 강의실을 서로 선점하기 바빴고 타워 형태의 주차장을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민과 함께 사용하면서 강사와 거주 주민과 다툼이 일기도 했다. 또 3층부터는 입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이다 보니 악기 수업은 물론 웃음 치료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강좌를 개설하기에 굉장히 민감했고, 강의실 수용인원에 비해 개수가 적은 화장실은 쉬는 시간마다 줄을 서서 이용해야 했다. 2017년부터 제2청사 건립이 추진되면서 평생학습관 이전도 함께 논의되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유용한 시설들을 둘러보기 위해 부산, 경상권에 있는 신축 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하였다. 당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은 작은 도서관이 함께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부산에서 규모가 가장 컸고, 울산 중구 평생학습관은 강의실 내 간이 가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였으며 해운대복합문화센터는 건물 안 옥상정원 같은 쉼터 구성이 잘 되어 있었다.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얻은 조언들은 강의실마다 문을 앞, 뒤 모두 설치할 것, 방음에 신경 쓸 것, 현수막 거치대는 꼭 설치할 것, 창고를 넉넉히 둘 것 등이 있었다.

결혼을 앞둔 새댁이 신혼집을 둘러보는 것 마냥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편리한 집기들을 매일매일 검색하고 둘러보면 서 새롭게 채워질 평생학습관을 상상하며 설레기도 했다. 그렇게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2020년 2월에 제2청사 5층

에 자리 잡았다. 보건소와 주민복지부서, 꿈꾸는 작은도서관 등이 함께 들어오면서 교육과 복지 서비스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하구의 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책을 읽으며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도 함께 한 곳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생학습관 각 강의실에서 전자교탁과 전자현수막을 설치해 좀 더 편리한 강의환경을 조성하였고 채광도 좋아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다. 학습관이 있는 5층에는 A동과 B동이 연결되는 곳으로 화장실도 넉넉해서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또한 양쪽 건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도 더했다. 특히나 5층에는 300석의 극장식 대강당이, 3층에는 프로그램실(회의실) 2개가 추가로 조성되어 강의실 사용이 수월해졌다.

1층에는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휴카페, 3층에는 무인 자판기가 있는 휴게실, 6층 옥상정원까지 쉼이 있는 공간도 곳곳에 만들어졌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아가 맘 카페, 치매안심센터까지 함께 있어 평생학습관 이용자 또한 연령, 대상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나 좋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2020년 2월에 문을 열었는데, 개관을 앞둔 한 달 전쯤 유례없는 코로나19가 한국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한 평생학습관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한 채 운영을 멈춰야 했다. 그 후 올해 4월까지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지만, 이번 5월을 시작으로 거리 두기, 인원 제한 같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얼마 전 부산시 평생학습도시들과 함께하는 컨소시엄 사업운영을 위해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주민과 평생교육사들이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방문했다. 다들 연신 사진을 찍으며 새롭게 단장한 평생학습관을 보며 놀라워했다. 신이 나서 시설 곳곳을 담당자들에게 소개하며 덩달아 내 어깨도 한 뼘은 더 올라갔다. 기관담당자한테 다섯 번은 말한 것 같다. “지하철이랑 바로 연결된 평생학습관 본 적 있으세요? 여기가 바로 전국 유일무이 사하구 평생학습관입니다.” 2008년에 이렇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금의 평생학습관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다음 평생학습관은 5층쯤 되는 건물 전체를 사하구 평생학습관이라 불리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예전에 시청을 지나치며 생각했던 지하철 연결 평생학습관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다. 주민 누구나 배움을 위해 드나들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되는 공간, 그 꿈을 이루는 시크릿의 주문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일 것이다.

김은지(평생교육사)



1. 사하아카데미 운영 개요

- (시기) 2월~12월(연 5~7회), 세 번째 수(목)요일
- (장소) 사하구청(대강당) 등
- (내용) 문화, 예술, 교양, 인문 등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깊이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제공

2. 사하아카데미 연혁

- (1회) 2008. 6. 3. 홍혜걸(의학전문기자)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
- (101회) 2022. 3. 17. 이승윤(방송인) 「자연인에서 배운 행복한 삶의 비결」
 - * 그간 강연자 : 김창욱(보이스 컨설턴트), 한비아(국제구호활동가), 김미경(리더십 교육전문가), 남상일(국악인), 이금희(아나운서) 등



서경덕(교수)

목련의 깨끗함과 벚꽃의 화려함에 출퇴근길이 행복했었는데, 벌써 영산홍과 철쭉의 화사함에 만춘(晩春)을 아쉬워해야 하는 계절이 되어버렸다.

2008년 여름의 길목인 6월 3일, 홍혜걸 의학전문기자의 강의로 시작한 사하아카데미가 자연인으로 유명한 방송인 이승윤의 101회 강의로 무려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꽃구경만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봄같이 사하아카데미도 자연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

목련과 같은 깨끗한 꽃을 피우고 호두알보다 단단한 열매를 맺고자 2007년 10월 총무과의 한 조직인 평생학습계에 뿌린 평생교육의 씨앗이 평생학습과를 거쳐 이름도 내용도 온전하고 튼튼한 평생교육과가 되었고, 특히 구민들이 쉽게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하아카데미는 아주 웅골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명사들을 사하구로 초청하여 그들의 삶과 소리를 구민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생생히 전해 주고자 시작한 사하아카데미의 14년 세월을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부질 없는 자랑질(?)이 될 것 같다.

봄이면 숨결도 느낄 수 없는 혹한을 뚫고 어김없이 올라오는 새싹처럼, 여름이면 하늘을 덮을 듯 무성하게 자라는 싱싱한 나뭇잎처럼, 가을이면 지천을 뒤덮는 오곡과 실처럼, 겨울엔 텅 빈 것 같지만 봄과 여름과 가을을 가득 채운 창고처럼 그렇게 우리 사하아카데미도 계속해서 자연처럼 흘러가길 바란다.

한희제(주무관)

사하구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 사하아카데미



이승윤(방송인)



박애리(국악인)



이야기고우니와 함께하는 자연·생태 체험 학습 사하자연학교

1. 사하자연학교 운영 개요

- (시기) 3월~12월, 휴시기 제외
- (내용) 사하구 자연명소(다대포·승학산·울속도·아미산)의 코스를 개발하여 생태해설·공예·체험
- (강사)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생태해설사
- (대상) 6세 이상 누구나

2. 사하자연학교 연혁

- (2012. 3.~2017. 11.) 이야기 고우니 1기~4기 양성
- (2013. 3.) 물운대 5코스 개발·운영
- (2015. 3.) 승학산 2코스 개발·운영
- (2020. 9.) 울속도 3코스, 아미산 3코스 개발·운영

새들도 쉬어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사하 낙동강 하구 유역에 자리 잡은 사하구는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인 모래톱(삼각주)과 울속도, 육계도로 변화된 물운대는 사하구의 주인이 누리고 있는 자연유산이다. 사하자연학교는 2013년 물운대 자연학교를 시작으로 사하구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직접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현장학습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물운대 자연학교로 시작한 사하자연학교는 계곡 생태를 알 수 있는 승학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와 기수지역*인 울속도, 모래톱을 관찰할 수 있는 아미산 등 각 권역의 특징을 살려 점차 확대되고 있다.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이야기고우니(주민해설사)가 직접 들려주는 생태이야기, 체험 등은 계절별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및 관내 청소년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알려주고 유익한 생태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물운대는 본디 섬이었으나 이제는 육계도가 되었고 우리나라 바다 3면의 특징을 다 느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파도길 코스[서해]를 따라 엽낭게 등 갯벌 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갯바위길 코스[남해]를 따라 따개비 등 조간대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산새길[동해]을 따라 갯고리 파란 바다와 고른 해안선을 볼 수 있다.

울속도는 낙동강 하구 유역의 다양한 서생·동·식물로 인해 철마다 철새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사시사철 옷 입는 울속도에서 한 해를 지내다 보면 우리도 자연과 닮음을 알 수 있다. 푸르른 봄·여름을 지나 억새와 갈대가 공존하는 가을·겨울 시기를 지내노라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게 된다.

승학산이라는 지명은 학이 내려온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불리고 있는데 벚꽃터널과 억새군락지, 철쭉군락지가 있는 산으로 제석골 계곡을 따라 서생하는 동·식물(울창이·나비·가래나무) 등의 한 살이를 살펴볼 수 있다. 등산로가 비교적 완만하고, 곤충을 좋아하는 유아들에게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아미산을 오르고자 한다면 자연·역사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아래길을 따라 걷다보면 서부산권 최대의 공업지역인 신평·장림공단이 한눈에 보이고, 퇴적 지형의 산물인 '모래톱', 조선 시대의 봉수대 응봉봉수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그리고 갈매길의 한 코스로도 지정되어 있어 갈매길을 경험해 볼 수도 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바람과 새들이 꽃가루와 씨앗을 운반하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꿔 적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을 보며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최미소(평생교육사)

기수지역*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강·바다에 서생하는 바다생물들이 공존





걱정말고 떠나세요 장애물 없는 사하 온누리 장애인 평생학습 여행!

산에 가면 정상에 오르고 싶고, 바다에 가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싶은 법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 그림의 떡일 때가 많은 것 같다. 비장애인들은 일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소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장애인 여행? 혹은 휠체어 여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보통 여행을 가면서 장애인을 마주한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다니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하구는 을숙도, 감천문화마을, 장림포구, 부산 현대미술관 등 전국 각지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하구 관내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자연경관과 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실상이다. 이러한 실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구 평생교육과는 단순한 생각을 실천에 옮겨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사하 온누리 장애인 평생학습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하 온누리 장애인 평생학습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 휠체어 온누리 버스를 활용하여 사하구 관내 여행을 지원한다. 온누리 휠체어 버스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여행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보다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1:1 활동 지원사 배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들과의 소통하며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운영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일일특강으로 진행되며 총 3가지의 테마가 있다.

— 첫 번째 사하 생태 학습 여행

사하구에는 눈이 저절로 많아지는 탁 트인 자연 경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경관들을 체험할 수 있는 물론대·을숙도·아미산·송학산 코스로 준비되어 있다. 생태 고우니(주민해설사)를 통해 계절별 곤충, 식물 관찰 및 산책을 즐길 수 있다.



— 두 번째 사하 역사 학습 여행

사하구 역사 여행코스로는 감천문화마을과 장림포구로 준비되어 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 사람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코스로서, 사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오는 코스들이다.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마을 풍경, 어린 왕자 조형물과 장림포구의 통통배와 형형색색의 일명 부네치아까지 즐길 수 있다.

— 마지막 사하 예술 학습 여행

사하구 예술 학습 여행코스로는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홍티예술촌과 부산 현대미술관이 준비되어 있다. 홍티예술촌은 사하구의 무지개공단에 위치하여 설치미술부터 시각예술을 전반적으로 전시하고 있어 평소에 접근하지 못한 작품세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부산시 유일한 현대미술관도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예술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그저 이동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일반인이 하는 여행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 여행을 통해 장애인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가 시작되길 바란다.

강소희(평생교육사)



이 동네에 학습, 저 동네에 나눔, 동네방네학습관

우리는 한 번쯤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고, 의지는 있지만 몇 가지의 걸림돌이 있어서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평생학습 강좌를 듣고 싶지만 교육장소가 너무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험, 또는 소규모의 학습 모임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평생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해 사하구는 관내 다양한 미사용 유휴공간을 동네방네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네방네학습관은 구민들에게 무료로 장소를 공유하여 평생교육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동네방네학습관에서는 단순한 장소 공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특색 있는 평생학습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동네방네학습관 활용을 통해 사하구민은 다 함께 옹기종기 모여 학습을 하고, 서로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나눔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다 함께 평생학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네방네학습관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강소희(평생교육사)

동네방네학습관

시설명	소재지
아토카페&공방	하신번영로 179번길 7
낙동강문화관	낙동남로 1233번길(하단동)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산로 177, 2층(신평동)
소리너름	회화나무길 67(괴정동)
형설모두학교	낙동대로 199번길 32, 3층(괴정동)
(주)동아기획	낙동대로 5361, 지하1층(하단동)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	다대로 716-1(다대동)
하루마을 문화교실	낙동대로 535번길 42(하단동)
새동아직업전문학교	하신중앙로 323(하단동)
흙 만지는 작업실	다대로 300번길 42, 2층(장림동)
우리아이발달심리센터	낙동대로 392(당리동)

※ 동네방네학습관 추가지정 모집 중이니, 희망하는 기관(시설)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올해 67세인 아빠는 23년 넘게 해온 장사를 언제 끝내나 하며,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장사가 예전만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이 드신 아빠가 일하시다 다치시는 횃수도 점점 찾아지니 건강이 염려된다. 쉬면서 자유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지만 아빠는 내 마음 같지 않으시다. 그간 고되지만, 가족에게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막상 쉬려니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걸도는 것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하는 아빠가 안됐고 짝하다. 퇴직 후에 오는 가족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괴리감, 비단 우리 아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베이비부머라 불리었던 그 시절 가장들은 대부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 같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고 싶은 것도 명확한 편이다. 2021년 사하구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을 비교해 봐도 여성(74%)이 남성(26%)보다 약 3배나 많다. 어쩌다 용기 내 일반 강좌에 등록했지만, 여성 학습자 사이를 걸돌며 중도 탈락하는 남성들도 더러 있다. 그렇다고 퇴직 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어린(?) 그야말로 어중간한 세대가 5060 남성인 셈이다.

사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는 일을 정작 퇴직 후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 퇴직 전에 여러 취미활동을 경험해 보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부단히 자신의 관심을 탐색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야 퇴직 후에 외롭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는 퇴직을 앞두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개설된 사업이다. 열심히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온 당신께서도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관심과 특기가 무엇인지 찾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 수업들을 공통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또 2개의 선택과정(산야초와 영상제작)으로 남성들이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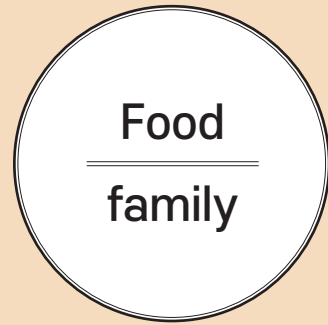
우리가 잘 자란 건,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를 기획하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목공예 수납장을 만들어 기부하고, 야외실습을 가기도 하면서 24명의 1기 수료생들은 동아리도 만들었다. 꼭 경제적인 일거리 뿐만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지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길 원했다. 1기 수료생들이 수료식을 하면서 기념으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취약계층에게 물품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과정의 기획 의도를 정말로 잘 알아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나 또한 일할 기운이 팍팍 나는 보람된 사업이었다.

올해 4월에 다시 시작된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 2기」는 1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나름대로 보완해서 7월 말까지 운영한다. ‘우리 아빠도 퇴직 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과정을 기획했으니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 2기」수강생들도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얻어 갔으면 좋겠다.

김은지(평생교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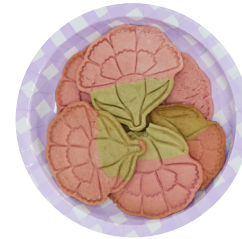


음식은 사랑을 싣고, 평생학습동아리 “푸드패밀리”



'아동요리'란 아이들도 쉽고 재밌게 요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업이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불, 칼)등을 배제하여
요리하는 과정을 흥미로운 놀이로 풀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식습관 개선까지 도울 수 있는 활동이다.

푸드패밀리는 아동 요리지도사들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로 요리를 통해 '가족처럼 친밀하게 하나가 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음식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다. 푸드패밀리 동아리가 결성된 후 3년 동안 관내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기관 등 아동·청소년·장애인들 대상으로 12개 기관, 70회를 운영하였고 700여 명이 푸드패밀리가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2020년도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평생학습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Q

‘아동요리’와 ‘푸드테라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비슷해 보이지만 '아동요리'는 아동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활동으로 한다면, '푸드테라피'는 식재료를 매개체로 하는 심리치유 활동입니다.

Q

푸드패밀리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요리 수업을 했었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 낯을 많이 가리고 예민해서 반응이 없던 (성인)장애인이 밝은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힐링이 되었습니다. 재방문했을 때 요리시간을 기다리고 환호해 주어서 아동 요리선생님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각종 장애로 인해 소근육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많았는데 요리 활동을 하려고 소근육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 감동적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았고, 장애인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수업하는 내내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Q

‘아동 요리지도사’인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행복배달부’ 정성이 깃든 건강한 음식을 만들며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 및 아동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까지 요리로 치유할 수 있는 아동요리 전문가입니다.

Q

어떤 교육철학이 있으신가요?

A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자’입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합성첨가물이나 발암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요리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Q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A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냄새를 맡는 요리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오감이 즐겁고 가족간의 소통 수단이 되는 요리 시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요리지도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나이를 넘어선 배움의 가치 성인문해강사를 만나다



황
정
옥

박
희
자

권
주
희

Q

문해교사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와 문해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해주실수 있나요?

A

황정옥 2012년 40년간의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퇴임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권유받은 것이 다대복지관 한글디딤돌교실 이었습니다. 초급반 어르신들께 재능기부를 한 것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 형설야학교,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또는 자녀들에게도 한글, 점성고시반을 맡아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으며 사하구 쓰담학교 한음반 선생님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권주희 문해교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추천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하구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문해교육사 자격증과정을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해교사를 하면서 오히려 학습자분들 에게서 삶의 지혜도 배우고 보람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 문해교사로 활동 하시면서 특별하게 보람을 느끼시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A

황정옥 집근처 아미산을 산책하다가 이팝나무 꽃을 보며 한글 교실에 수업을 들으시던 90대 어르신이 생각났습니다. 어르신 눈썹이 하얗게 서리가 내린 것처럼 마치 이팝나무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세가 드신 저분도 한자라도 배우려고 오시는데 하며 제가 하는 문해교사 일에 더 강한 책임감은 느끼게 된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박희자 어린시절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문해교사라는 일로 일찍이 접했던 제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나는 못다 이룬 선생님이란 꿈을 지금에야 이루고 어르신들은 일상에 포기한 글자를 배우며 지학철도 혼자 타며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꿈을 우리는 서로가 의지하며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가치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문해교사의 역할에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문해교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박희자 저는 오늘이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과 포부도 오늘에서 시작하고 준비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어르신들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보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재미있는 수업을 미리 준비하고 같이 소통하며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권주희 학습자분들이 처음 접하는 자음, 모음, 이중모음, 겹받침 등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데, 저 또한 사하문해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더 배우고 공부해서 구구단처럼 쉽고 재미있게 글자공부를 할 수 있는 문자표, 또는 규칙, 암기법 등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

비문해 학습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A

황정옥 글을 모르시는 것이 당신이 큰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 그 시절이 못 배우게 만든 것이지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운 것이 아니니 부끄러워 말고 건강 챙기셔서 우리 함께 배울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합시다!

박희자 문해력을 갖춘다는 것은 모든 소통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처럼 더 늦기 전에 배우려고 마음먹은 지금이 빠른 겁니다.

권주희 우리 반 학습자분들께 자주 쓰는 말인데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1년 뒤편 읽고 쓸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속제 열심히 하고 친구들 만나러 꾸준히 쓰담학교에 나오다 보면 저절로 한글이 쑥쑥 늘 테니 걱정마시고, 빠짐없이 수업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품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은 나



평생학습 수강생

김
기
영

저는 사하구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사하구에 살면서 자원봉사로 요양병원,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을숙도문화회관, 하우스 매니저 등 여러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재능기부로 노력 봉사해 왔습니다. 제가 사하구에서 평생학습을 참여하며 함께하는 평생학습동아리 회원 한 분이 평생학습관 강의 중에 홍보물을 건네주며, 나를 빛나게 하는 목소리, 낭독과 보이스 트레이닝을 배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나이 들어가면서 기품있는 목소리로 나를 빛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2회기 중 8회차 과정을 지나며 제 소감을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첫 시간 백승미 강사님은 다소 당찬 모습으로 자기소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자기소개는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저에게 “이 수업, 뭐임? 열렬결에 앞에 서서 무슨 말을 어떻게 소개하지?” 하며 긴장과 떨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강사님께서 많은 팁을 알려주셔서 자기소개를 잘 마칠 수 있었지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강사님의 매회 수업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의 발음교정까지 봐 주시고 보이스 녹음 과제까지 완전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는 안 맞는 강의라 생각하고 수강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수업을 받다 보니 지금은 강사님 열정적인 강의 활동에 수업이 재미있고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느끼게 되더군요.

특히 강사님의 스피치 과정 중에 스피치 잘 안되는 세 가지 이유가 마치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았지요. 여러 사람 앞에서면 긴장되고 떨리고, 별로 '말할 거리'도 없고, 할 말 많은데 조리가 없고. 이런 저에게도 변화가 생기더군요. 긴장하지 않고 말할 거리 없는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의 방법과 호흡, 발성, 발음, 연습을 통해 또랑또랑한 스피치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접해 본 적 없는 제겐 모든 연습이 신기루 같더군요.

이제는 나름 남 앞에 서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 덕분이 아닐까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이렇게 무료로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신 사하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배움에 대한 나의 도전과 용기가 훗날 나의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보며 빛나는 저의 목소리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나만의 한글 공부법



평생학습 수강생

손
충
자

내가 즐겨보는 방송 중에 「어쩌다 사장」이라는 방송이 있다. 차태현과 조인성 배우가 시골 슈퍼에 와서 일주일 동안 사장으로 일하는 내용이었다.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사장즈'라는 자막이 계속 나왔다. 참 이상한 일이다. 사장님도 아니고 '사장즈'라니...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그런 단어는 없었다. 딸에게 물어보니 '사장즈'라는 말은 사장님의 복수 표현으로 's'를 붙여 복수를 나타내는데, 그 발음이 '즈'라고 했다. Girls(걸즈), Guys(가이즈)가 소녀들, 소년들인 것처럼 '사장즈'는 차태현과 조인성, 두 명의 사장들을 부르는 말이었다. 세상에 가지가지 별의별 단어가 많다.

한글 공부를 하면서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한다. 예전에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물어보는 게 나만의 한글 공부 방법이 되었다.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단어는 '얼죽아'가 있다. '얼죽아'라는 말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한다. 처음 이 말을 듣고 많이 웃었다. 그런데 자주 쓰다 보니 나도 한결 젊어지는 느낌이다. 이 말은 배우고 나서 나도 '얼죽아'한다.

다가오는 여름, 카페에 가서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 놓고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재미있는 나만의 한글 공부도 꼭 계속해야지!

평생학습관 수업은 특템이다

평생학습 수강생

오
명
규

“아빠,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초4 딸아이의 뜬금없지만

나도 약간 동의되고

한편으로는 동심의 매우 만족하다는

바람이 느껴지는 한마디,

아직 생생하다.

딸은 벌써 중 3이지만



1/ 2017. 4월 [아빠와 쿠킹클레스] (4주)

초4 딸과 매주 토요일 사하구청 옆 제과제빵학원으로 다니면서 주말 일정은 시작되었다. ‘왜? 아빠와 함께 주제를 정하셨는지’ 처음에는 4번이라는 횟수에 부담이 되었지만 자꾸 하다 보니 남는 게 많았다. 매주 손수 만든 따끈한 과자나 빵을 가득 받고 SNS 친구들과도 나누고 다음 날 교회 가서도 나누고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일도 생겼다.

2/ 2019. 8월 [드론 방과 후 교사과정] (12주)

생각만 하던 드론에 대한 관심을 그것도 ‘방과 후 교사 자격’이라는 기분 좋은 선물도 갖게 한 과정이었다. 물론 계절이 한번 바뀌는 12주 과정이 짧지만은 않으나, 그만큼 적응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후 지금도 벅스코 ‘드론 show’에 가 보기도 하고 다음 직업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드론 1급 자격 준비를 하려는 목표에 조금씩 더 다가가려고 한다.

3/2021. 5월 [샌드아트 2급 자격과정] (2회, 주 15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와중에 대면 수업으로 해서 놀랐고 감사했다. 매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과 조용히 BGM(배경음악)을 들려주시고 자유주제로 연습시간을 주실 때면 ‘흙으로 힐링’을 체감하게 한다. 따라 하기를 몇 번 하면 생기는 자기작품을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일회성 작품이라 지우기 아쉬워 인증샷도 남기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너는 직업이 몇 개냐?” 하는 소리를 기분 좋게 듣기도 했다.

4/2022. 3월 [스마트 스토어 창업 도전기] (2회, 주 12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번 주가 되면 마지막 강의를 받는데, 수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안내받는 기간중에 이미 쇼핑물을 한 지인 두 명을 만나 추가 경험을 듣는 등 하면 할수록 모르는 분야지만 좋고, 심지어 같이 해보자고 주위에 권하기도 한다. 사이사이 일회성이나, 작은 수업들도 참여한 기억이 있었지만 큰 일정만 정리해 본다.

운 좋게 경주 사는 친구를 이번 수업에 소개해 참여하게 되었고 그동안 나의 경험을 나눌 때는 그다지 큰 느낌 없다가 같이 하면서는 ‘학습관의 단맛’을 맛보게 되었다고, 심지어 친구는 쇼핑물을 개설만 하고 멈추어 있는 시점이라 매시간 엄청 큰 가이드를 받는다고 좋아한다. 요즘에 유행하는 특템력

이라는 단어가 있다. 돈이 있어도 구매하기 어려워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물건을 가질 때 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품귀성으로 사달라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을 편의점이나 마트 앞으로 줄 서게 하는 포켓몬 빵 같은 경우는 특템력 높이는 가장 좋은 사례일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평생학습관 수업은 특템력 최상급이다’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개설되는 수업들의 종류와 수준이 고퀄리티는 기본이고, 낮밤으로 열리는 수업이라서 사하구민 전체의 교육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상승케 하는 효과일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여러 과목을 차례대로 수강하니 사회적 재교육의 연속성 같은 면에서도 광고나 활동들을 찾아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크게 앞서는 1등’이라고 생각된다.

사하구 지역 자랑거리 중 서낙동강의 다대포 일몰은 코타키 나발루나, 보라카이보다 더 좋다는 것을 나의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다. 경주 사는 친구가 이번 [스마트스토어 창업 도전기] 수업에서 평생학습관의 혜택을 만나고 있는데 이사는 못 오지만 계속 수강 기회를 기다린다고 한다.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에서 출발, 그 물줄기가 낙동강 하굿둑까지 약 1300리(里) 내려오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매일 샘솟는 연못 물줄기의 꾸준함으로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듯 나에게 평생학습관은 초등학교 때 쿠킹클레스를 경험한 우리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그의 자녀가 평생학습관에서 다시 학습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연결 되어져 사하구민 누구에게나 평생 동반자 같은 역할로 구민뿐 아니라, 부산 시민과 나아가 대한민국 자녀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숨은 가정교사 같은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요즘도 매월 4월이면 핸드폰 갤러리에서 평생학습관에서의 기억을 추억 사진으로 알려준다. 소중한 그 날의 추억을 만들어 준 사하구 평생학습관 관계자분들 지면으로나마 대신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행복학습 매니저 체험담



행복학습매니저

김
민
경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다 하고 있다. 나는 운 좋게 일찍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존재를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진로지도탐색사 자격과정을 시작으로 직업상담사,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던 중 행복학습센터에서 열리는 좋은 강좌를 나 하나의 배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강좌를 더욱더 많이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즐거움과 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났고, 그렇게 행복학습매니저를 지원하게 되었다.

매니저 활동을 시작하며 긴 시간의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행복 학습 교육의 장인 장소발굴과 지역주민의 니즈를 설문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모니터링을 나가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소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2018년 뜨거운 여름을 더욱 열정적이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었다.

다양한 매니저 활동 속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2020년 12월, 동네방네학습관에서 3주간 개설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과정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능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종강일이 크리스마스이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학습자분들이 교실에 모여 열정을 불태웠고, 평소에도 자발적으로 기출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마침내 전 수강생이 80% 이상 1차 시험에 합격하며 배움의 열기가 배가 될 수 있었던 경험이 무척 뿌듯하고 보람된 기억으로 남았다.

이렇듯 매니저 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교육 현장에 갈 때마다 학습자분들의 배움에 대한 맑은 눈빛과 열정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느끼고 온다. 행복학습매니저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성장을 지원하는 촉진자,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크, 마을 활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가, 주민과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변화관리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는 이러한 매니저 활동을 통해 가치의 장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행복학습매니저가 되고 싶다.

글쓰기는 무제



구민기자

김
미
연

‘땡’하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손이 폰으로 갔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온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3월부터 아이들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한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다. 오후에는 알바가 있고 오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다. 유익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었다. 페이지를 넘길 만큼 많은 강의가 있었다. 내가 관심있는 내용이 분명 있을 것이란 기대와 설렘으로 검색했다. ‘나도 작가’ 에세이 테라피-글쓰기와 책 발간’이 눈에 밟혔다. 간간이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 강의는 나에게 색다르게 다가왔다. 나는 두 아이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강요하는 엄마다. “엄마도 책 좀 읽고 독후감 적어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예요, 엄마는 안 하면서 우리만 하라고 하고.” 아이들의 불멘소리를 애써 외면했었다. 엄마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숙제로 했었다고 말하는 나를 아이들은 믿지 않는 눈초리로 쏘아본다. 어릴 때 한 반에 60명도 넘었는데도 1등 했다. 부모라면 한 번쯤은 아이들에게 하얀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엄마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온다면 아이들도 많이 놀라지 않을까? 그럼, 엄마가 하는 말에 조금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까. 책에서 나의 글을 본다면, 약간은 짜릿한 느낌도 들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강의를 신청했다.

수업시간 첫날. 마스크 너머 예쁜 눈을 가진 젊은 여선생님을 만났다. 10명이 조금 넘는 수강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할지도 궁금했다. 선생님의 수업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어서 ‘불명’이 아니라 ‘철명’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작가들은 니체의 뇌를 가졌나? 나는 강의 속에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집중하게 되었고, 수업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커졌다.

수업은 지친 나를 돌보는 시간이었다. 나쁜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깊이 해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 시간만큼은 내 속에 숨겨진 것들, 느껴지기는 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지 못했던 많은 시간을 돌아보게 했다.

선생님의 강의가 끝나면 배경 음악 속에서 사유하라고 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음악과 함께 온전한 심을 가질 때도 있다. 선생님은 글이 자아가 된다고 말한다. 나의 존재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사유의 시간을 가지라고 한다. 내 속에 있는 상처를 터뜨리고 성숙한 나로 변신하라고 한다. 그럴 때 쓴 글은 우리를 치유한다고 한다. 나를 회복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은 이처럼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

16회 강의 중 지금 7번째 강의다. 어렵게 느껴졌던 철학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글쓰기는 인문학적인 삶의 결과물이란 생각이 든다. 수업을 통해 내 삶의 본질을 찾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다음 시간은 반 고흐의 그림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다. 강의가 끝나는 6월쯤에는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지 않을까. 미래의 희망과 함께 반 고흐의 고뇌를 마음에 담아본다.

나도 작가! 에세이 테라피 강좌를 듣고



평생학습 수강생

권
홍
숙

한때는 내 심장을 후비고 파내는 상상과 현실의 고뇌가 있어 글로라도 내뿔지 않으면 마음이 끓아버릴 것 같았던 사춘기 소녀 시절을 생각하며 사하구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 '나도 작가! 에세이 테라피' 강좌를 신청했다.

공민경 인문학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경외감을 느끼며 내 안의 숨어있는 감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주어진 주제를 받아들이고 글을 쓰려고 해도 혼란스럽기만 하였고 머리를 흔들며 쥐어짜도 불협화음 같은 단어들만 맴돌았다. 내 주제도 모르고 괜히 신청했나 하는 자책과 함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자신을 생각해보았다. 꿈도 없고 열정도 낭만도 없는 나. 흐르는 세월 속에 무심히 나를 얹어 놓고 무탈하기만 기원하는 나. 젊은 시절 그 많던 희망 사항과 행복조건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젠 건강이 최고 행복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나. 뇌의 노화로 단순해 진 것인지, 복잡한 삶의 무게를 외면해지고 싶어 단순해 진 것인지……

그리고 보니 벌써 4월도 한참 지났구나. 나의 서글픈 생각을 위로하듯 빗꽃 비가 내리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연분홍빛 화려함과 풍성함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더니 이젠 나폴나폴 우아하게 춤추듯 날아다니는 꽃눈은 메마른 감성에 살짝살짝 생채기를 내고 심지어 땅 위에서 다시 꽃 핀 듯한 즐거움을 주며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짧지만 너무 아름다운 일생이다. 내가 벚꽃이라면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지금 막 꽃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나폴거리는 작은 꽃잎 하나! 지금껏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생활하고 호흡하며 걸음을 맞추고 상대방의 눈에서 내 모습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나 혼자이다. 이젠 내가 나를 바라볼 시간이다. 천천히 내 걸음에 맞추어 호흡하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의 모든 감정을 소모하고 아파한 세월은 치매를 걱정할 만큼 건망증을 가져다주었다. 그렇지만 한때는 나도 사랑받고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글로 남기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을 써 내려가는 작가가 되고 내 마음을 읽어가는 독자가 되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땅 위에서 아름답게 소멸되어가는 벚꽃잎처럼 스스로를 사랑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를 마주하지 않겠는가?

“파”



평생학습 수강생

이
지
영

처음 접했던 건 광고였다. 모 대기업 광고에서 집을 나오면서 어느 지점까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수어를 행한다. 주인공 농인은 한편으론 의아해하며 또 한편으론 행복해한다.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반갑듯 그도 그랬던 것 같다. 몇 년이 흘러 수화는 수어로 변했고 우리의 인식도 청각장애인에서 농인으로 변하고 있었다. 좋은 진전이었다.

일을 하면서 수어를 틈틈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접했지만, 확실히 언어이기에 그리고 동작이기에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수어강좌를 찾기가 어려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올해 초 강좌가 신설됨을 발견했다. 주 1회 수업이지만 열정적인 선생님 덕분에 모든 수강생도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심 없이 달려가는 1시간 반을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부터 숫자와 지문자까지 점점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배움이 늘었다. 어려워졌지만 그만큼 알아가는 단어들이 늘어나는 쾌감과 우연히 농인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을 때 즐거워하는 그분들의 모습, 스스로의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수어뿐 아니라 청인들이 가지는 농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편견을 유연하게 말씀해주셔서 배움이 배가 되었다.

우리는 영어나 일본어,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 언어를 배움에 더 이해가 빠르고 습득이 빠르다. 그것처럼 수어 또한 하나의 언어로 농인들만의 문화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사하구 주민으로서 근처에 평생학습관이라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파” 수어로는 “할 수 있다.” 의미다. 앞으로 꾸준히 배워 수어가 능숙해질 거라 “파!” 마음을 다지며 다가오는 화요일을 기다린다.

봄 햇살 내리는 교실



쓰담학교 문해교사

박
희
자

코로나 전쟁을 무사히 지나온 환한 웃음들 봄 햇살에 앉은 민들레꽃 같다. 먼 길 걸어 닮은 꿈, 처음으로 학교가 생겼고 공부하는 교실이 생겼다. 벅차오르는 늦은 가슴 공부에 열중하느라 시간을 잊는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글 앞에 불편했을 것이며 움츠린 가슴 감추었겠는가, 가난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감사한 마음 아끼지 않는다. “시대를 뛰어넘어 요즈음 태어났으면 모두가 학자가 되었을 학구파들이다.”라고 나는 자주 응원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낯설과 경계를 허물고 울고 웃고 하는 사이 가슴을 열고 사랑과 행복이 커지고 있는 쓰담학교 석봉반이다. 여름에 선행 갔다 주려고 방앗간에서 금방 나온 뜨거운 가래떡을 가방에서 꺼내며 흘리는 땀방울이 내게로 건너왔던 일, 커피점 커피를 종종 탁자 위에 얹어 놓기도 하고 봄나물 한 뭉치 씹장과 뽕뽕 뭉쳐 들고 와서 교탁 안에 살며시 넣고도 간다.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 온도를 높여가는 인정은 따뜻한 사랑으로 흘러 내 마음을 싣고 간다.

꿈은 용기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만학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행복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꿈이 있었다. 2018년 사하구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한 문해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후 사하구청의 도움으로 한글 강사 재능기부 봉사를 시작했다. 문맹인이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 현장에서 비문해자들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고령자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와 문맹 탈출을 꿈꾸는 희망과 독거노인 돌봄까지 되는 이중적 효과가 있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좋았다. 꿈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위

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쉽게 익히지 못하는 공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나도 더불어 쉬지 않고 공부해야 했다. 글을 읽지 못하면 이해를 못 하고 이해를 못 하면 읽은 글을 기억하지 못했다. 또 글을 읽는다고 해도 뜻을 모르면 재미가 없다고 했다. 국어 자료들을 찾아서 학습자에 맞춤 공부를 시작했다. 느린 것 같아도 지치지 않고 순서대로 또박또박 설명하고 배우는 열정이 하나로 되어 지금은 문장 읽기와 쓰기에 도전한다.

지난해 년 말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처음으로 만들어 귀한님들께 직접 보내는 수업에서 학습자님들에게는 그 추억이 얼마나 대견하고 감동 넘친 이야기가 되었는지 두 달 방학 동안 전화를 많이 받았다. 제일 큰 변화는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지하철도 도움 없이 타고 신평역에 내려 안내자 없이 엘리베이터로 5층 강의실까지 곧바로 오고 가는 학습자님들 자량이 나에게 반갑고 기쁜 일이다. 글을 읽지 못해서 문화혜택받지 못하는 일, 읽어도 뜻을 몰라 이익을 포기하는 일, 얼마이겠는가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불편함을 모른다. 배워서 남 준다는 공부다. 90%의 문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10%의 비문해자의 문맹 탈출을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어렵지 않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의 열정 가운데 사하구 쓰담학교가 있고, 찾아오는 어머니들이 있고, 내가 있다는 것, 그 덕분에 더불어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 봄 햇살 내리는 교실 새 학기 맞은 반가운 책가방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하다.

함께 한 10년



사하자연학교
생태교우니 1기

김
현
순

어제는 오랜만에 손녀를 봐주러 미국 보스턴에 가 있는 친구와 긴 통화를 했다. 그녀는 평생학습관에서 처음 만났던 동갑내기 친구이다. 함께 숲과 하구를 탐방하며 공부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2012년 따뜻한 봄날, 하단동 평생학습관의 낯선 문을 두드린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을 만질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따뜻한 추억들이 벽돌처럼 차근차근 쌓여온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설레었던 만남도 코끝 찡한 헤어짐도 있었다. 학습관에 발을 디뎠던 첫해, 늦깎이 학생인 우리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무던히 애쓰셨던 참한 평생교육사님이 우선 떠오르고,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는 나의 첫 스승인 개구리 선생님도 보고 싶다. 개구리 선생님의 열정적 가르침 덕분에 반짝이는 오늘이 있음은 진심이다.

평생학습관에서 펼쳐준 기회의 풀밭에서 좋은 친구, 후배님들과 힘을 모아 만들었고 지금도 꾸준히 도약하는 ‘사하자연학교’는 나의 인생 2막에서 배우는 ‘재미’와 배운 것을 펼치는 ‘의미’를 담아내는 운동장이다.

괴정 까치마을 경로당에 한글 교실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정이 넘치던 할머니들께는 내가 해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되돌려받은 것 같아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 온다.

작고 소심한 만남으로 시작된 평생교육과의 꾸준한 10년은 진정한 나를 열심히 찾는 여정이 되었다. 사하자연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활발한 몸놀림과 순진한 미소는 나를 더욱 활기치게 만들어 준다. 평생학습관 이모저모를 기웃거리며 배웠던 수많은 강의는 여전히 나를 10년 더 젊은 모습으로 살게 한다.

조호진 시인의 시 ‘숲’ 중에서 ‘혼자 푸르면 숲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을 가슴으로 공감하며 다짐해 본다. 생태해설을 배우는 후배들에게는 배우는 재미와 베푸는 의미를 전해주고 싶다.

오늘 오후는 대전에 사는 외손녀와 zoom으로 영어 공부하는 날이다. 학습관에서 배운 zoom으로 요즘 트렌드인 ‘손공할’(손주 공부 가르치는 할머니) 활동도 하면서 초등생 손녀와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평생학습관을 알게 된 기쁨과 더불어 다시 한번 감사를 보내고 싶다.



우리동네 행복한 이야기꾼 사랑누리 실버인형극단

—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의 마스코트 사랑누리 실버인형극단 양성과정은 사하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사랑누리 실버인형극단의 시초는 2014년 동화구연을 공부하던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결성한 인형극단이다. 현재는 인형극단 한영숙 회장님을 필두로 8명이 인형극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인형극에 필요한 손 유희와 동작을 배우고, 직접 인형 옷과 소품을 바느질로 제작하였다. 또한 인형극 내용을 단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대사 한마디까지 손수 제작하였다.

2021년 사랑누리 실버인형극단은 '코로나19 예방 인형극'을 제작하고 지역사회 아동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마스크 쓰기에 대해 인형극으로 전파하였다. 숨기려고만 하였던 노년기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인 성 존중 인형극'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공연하였다.

올해 2022년에는 사랑누리 실버인형극단은 사회적 이슈인 유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제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공연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한다. 인형극단 단원 김두리 어르신은 “매년 아이들에게 공연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아직까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며 앞으로 인형극단 활동에 기대하고 있다.

류재영(사회복지사)



청소년기자단이 알려주는 우리 마을 알리미 〈다대는TV〉

—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소식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가 필요한 참에 틱톡, 브이로그 등 다양한 영상매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에 맞춰 우리도 영상으로 다대동을 알리고자 2019년부터 사하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다대는TV>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이 영상편집을 배우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에 공유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MBC 라디오에 출연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즐겁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서로 말 못 할 속상한 일도 많았다.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2020년, 2021년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애니어그램 주민조직 교육도 받고,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좀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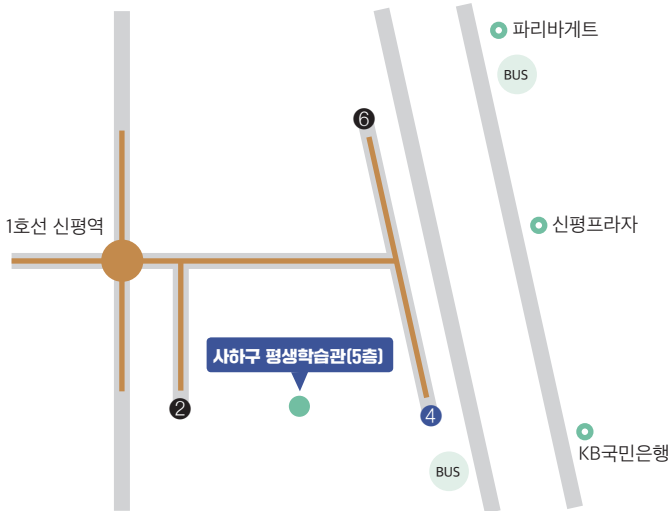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다대는TV>를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은 크지만, 중장년층이라는 특성상 중장년 본업과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많아 아쉬웠다. 그래서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다선중학교와 협약하여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꿈이 가득한 청소년 친구들이 들려줄 우리 마을 이야기. <다대는TV>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영상을 보고 우리 동네 소식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선아(사회복지사)



2022년 평생학습관 여름특강 프로그램							
• 대 상 : 사하구민 및 관내 근로자 240명 • 운영기간 : 2022년 7월 4일(월) ~ 8월 31일(수) ▶ 9주간 • 운영방식 : 대면·비대면 • 수 강 료 : 무료(교재 및 재료비 별도)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사하구 평생학습관 앱 100배 활용하기		하나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사하구 평생학습관 검색
							둘 간편한 회원가입 셋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수강신청
운영 체제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요일	시간	모집 인원	재료비 등	비고
대면	브랜드 마케팅 활용 SNS 글쓰기	7. 4. ~ 8. 29. (8회 16시간)	월	10:00~12:00	20	-	
대면	색채, 향기와 함께하는 감성코칭	7. 12. ~ 8. 30. (8회 16시간)	화	10:00~12:00	20	3만원 교재비포함	
대면	노인 건강 관리사 자격과정	7. 5. ~ 8. 23. (8회 24시간)	화	10:00~13:00	20	1만5천원 응시료 별도	
대면	스테인드 글라스 생활 소품 제작	7. 20. ~ 8. 24. (6회 18시간)	수	10:00~13:00	15	3만5천원	
혼합	모바일(키네마스터,VLLO)영상제작과 미리캔버스 템플릿 제작	7. 6. ~ 8. 31. (9회 18시간)	수	10:00~12:00	20	영상제작(대면) 휴대전화 소지 템플릿제작(비대면) 노트북 또는 PC	
대면	아크릴 나이프화로 사하 그리기	7. 8. ~ 7. 29. (4회 10시간)	금	10:00~12:00(1~2회) 10:00~13:00(3~4회)	15	4만원	
대면	초보자를 위한 DSLR 풍경사진 촬영 노하우	7. 4. ~ 8. 22. (7회 14시간)	월	19:00~21:00	20	-	DSLR, 미러리스 소지자 (똑딱이 카메라 사용불가)
대면	해설이 있는 뮤지컬 영화기행	7. 11. ~ 8. 8. (5회 10시간)	월	19:00~21:00	30	-	
대면	일상을 담은 태블릿 드로잉	7. 7. ~ 8. 25. (8회 16시간)	목	19:00~21:00	15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탭, 태블릿펜슬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앱 설치 가능자)	
대면	기후변화(일기예보) 과학 이야기 날씨 우산 만들기	7. 9. (2회 4시간)	토	10:00 ~ 12:00	30	5천원	가족단위(초등 저)
대면	유리공예 우리 가족 다용도 플레이팅 도마	7. 9. (2회 4시간)	토	10:30 ~ 12:30	30	1만원	가족단위(초등 저)
비대면	집에서도 야외에서도 OK 우리 가족 캠핑(꼬지류)요리	7. 16. (2회 4시간)	토	10:00~12:00	30	1만원	
• 1인 1강좌 원칙입니다. • 상기 운영일정 및 운영체제는 코로나19 등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과반 미만 모집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사하구 쓰담학교 장원반 (기초인문반) 참여자 모집]			
- 운영시기 : 2022년 9월 ~ 12월 - 모집시기 : 2022년 8월 중 - 모집대상 : 사하구민 및 관내 근로자 - 운영내용 :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20여개 과정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www.saha.go.kr/edu) 평생학습관 앱(APP),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문 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 220-4118, 5548				다양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눌 “쓰담학교 장원반 (기초인문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운영기간 : 2022년 9월 ~ 12월 매주 월요일 15 ~ 17시 - 장 소 : 사하구 평생학습관 - 대 상 : 독서에 관심 있는 65세 이상 사하구민 - 내 용 : 책 읽고 독서 소감 나누기, 인문토론, 시사, 글 읽기 등 운영 - 문 의 : 평생교육과 ☎ 220-4805			

평생학습 정보를 한눈에! 참여는 손 쉽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하구 평생학습 소식을 받는 방법!			
	홈페이지	http://www.saha.go.kr/edu	
	밴 드	http://band.us/@lllsaha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llsaha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검색(돋보기 모양)클릭 ▶ 「사하구 평생학습관」 검색 후 친구 추가	
	모바일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 「사하구 평생학습관」 검색 후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지원됩니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찾아오시는 길			
			
평생학습관 위치 ▶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신평동), 사하구 제2청사 5층 [교통편]  버스 : 2, 11, 113, 138-1, 338  도시철도 : 1호선 신평역 4번 출구			

기업 내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평생교육사업
「기업, 학습으로 꽃 피우다」

우리구는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신평·장림 및 다대지역 공단 등)가 있는 지역특성에 맞추어 지역특화 평생교육사업으로 「기업 근로자 대상-기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사하구 기업 및 근로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혜택, 기업교육 신청 • 문의 : 평생교육과 ☎ 051-220-4804

● 사업소개

직장에서 즐기는 학습 한끼



- 신 청 : 관내 기업체
- 내 용 : 기업(근로자)이 희망하는 강좌를 직장으로 찾아가서 실시
- 장 소 : 기업 내 강의실 등
- 모집기간 : 연중 접수

퀵! Quick! 근로자 배달강좌



- 신 청 : 관내 근로자(최소 4인 이상)
- 내 용 :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교육 제공
- 모집기간 : 연중 접수

‘자전기’ 프로젝트



- 기 간 : 2022. 6월 ~ 11월
- 내 용 : 자활근로자가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장 소 : 사하구 평생학습관 및 지역자활센터 강의실

2022년 하반기 사하구 평생학습 홍보

문의 : 평생교육과
(☎ 051-220-4801~4806, 4118, 5548)

1. 하반기 사하자연학교 운영

- 시 기 : 2022년 9월 ~ 12월
- 대 상 : 가족(2인 이상), 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성인동호회)
- 장 소 : 물운대, 승학산, 을숙도, 아미산 일원
- 내 용 : 생태 관찰, 체험 및 놀이, 생태 공예 등

2. 하반기 행복학습센터·동네방네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시 기 : 2022년 9월 ~ 12월
- 장 소 : 관내 행복학습센터 13개소, 동네방네학습관 11개소
- 내 용 :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창의력 쑥쑥 마을캐릭터 만들기 운영

- 기 간 : 2022년 9월 15일 ~ 10월 27일(매주 목요일) 16:00 ~ 18:00(총 8회)
※ 9.24.(토) 10:00~12:00 모래톱 행복마을 전통장 만들기 체험 참가
- 장 소 : 평생학습관
- 모집인원 : 15명

4. 모래톱 실버건강교실 운영

- 기 간 : 2022년 9월 15일 ~ 12월 1일(매주 목요일) 14:30 ~ 16:00(총 12회)
- 장 소 : 모래톱 행복센터 프로그램실
- 모집인원 : 15명(모래톱행복마을(신평2동) 주민 우선 접수)

5. 행복가득 배달강좌

- 시 기 : 2022년 9월 ~ 12월
- 대 상 : 구민 5 ~ 8인으로 구성하여 신청
- 내 용 :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6. 제7회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 시 기 : 2022년 10월 27일 ~ 10월 29일(예정)
- 장 소 : 사하구청 대강당, 다대포 등(개별사업별 상이)
- 내 용 : 평생교육사업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행사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 성인문해한마당, 홍보·전시관 운영 등

7. 사하아카데미 개최

- 시 기 : 2022년 8월, 10월, 12월 세 번째 수(목)요일(강사 미정)
- 장 소 : 사하구 제2청사 대강당



낭만의 부네치아 장림항

어느 맑은 날,
해질녘 강변로를 따라 걷다
황홀한 일몰을 마주한 기쁨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색색의 감성,
이국적 낭만이 어우러지는
부산 속 작은 유럽

장림항은 낙동강 하구에 조성된
소담한 어항으로,
수면 위 작은 배들과 알록달록 줄지은
유럽풍 건물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부라노섬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부산의 베네치아, '부네치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장림항 시설안내

-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 관광객 휴게소, 수산물판매장, 커피숍, 옥상전망대 등
- 맛술촌 | 가설점포 13개소(어묵, 특산물, 핸드메이드 제품, 도기공방, 드론) 등
- 도시숲 | 회화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금사철, 홍가시, 꽃댕강, 애란 등
- 놀이존 | 그네 해먹놀이, 보물선 클라이밍, 난파선, 장애물 건너기 놀이대 등
-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 해양보호구역 의미와 보존가치 홍보 영상 및 전시
- 문화존 | 시계탑, 소년동상, 종이배 동상, 웨이빙 동상, 쉼터 등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이색 여행 Enjoyment of BUNEZIA

장림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예로부터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자 김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업단지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오래도록 발길이 끊겼다가, 2012년부터 시작된 명소화 사업을 통해 부산의 이색 여행지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부네치아의 낭만, 사진에 담다 Romance of BUNEZIA

세계적인 미향, 베네치아의 정경을 닮은 무지갯빛 건물들과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 그 위로 평화로이 떠 있는 배들이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유럽과 부산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특히 아름다운 색감, 부산만의 정겨운 감성이 사진에 생생히 담겨 낭만 가득 '인생샷 명소'로 SNS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구창고 포토존

베네치아 부라노섬에 가면 꼭 찍어야 한다는 인증샷. 부네치아에서도 아름다운 인생 9컷을 남길 수 있다.

